회장동정

- 7. 1 : 전북지부 직무교육 개강식 참석
  경기북지부 창립총회 및 현판식 참석
- 7. 5 : 경기남지부 직무교육 개강식 참석
- 7. 9 : 제18차 이사회 주재
- 7.13 : 강원지부 직무교육 개강식 참석
- 7.14 : 상공자원부 전력국장 주재 회의 참석
- 7.19 : 서울 직무교육 개강식 참석(6차)
- 7.22 : 서울 직무교육 개강식 참석(7차)
- 7.26 : 서울 직무교육 개강식 참석(8차)
- 7.29 : 서울 직무교육 개강식 참석(9차)

협회 주요업무일지

월 일	주 요 업 무
7. 1	경기북지부 창립총회 및 현판식
1~3	전북지부(전주) 직무교육
5~10	경기남지부(안양) 직무교육
6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9	제18차 이사회 개최
13~15	강원지부(강릉) 직무교육
19~31	서울(본부) 직무교육(6차~9차)
21	제1차 직원 상조위원회 개최

제18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 1993.7.9(금) 16:00~18:3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이사 : 권용득회장외 12명
○ 심의안건
- 전기사업법 개정 최종(안) 심의 원안대로 의결처리 : 협회 명칭을 한국기술관리인협회에서 한국전기기사협회 수정의결
- 지부설치운영규정 개정 : 원안대로 의결
- 기타토의

전기안전관리사 직무교육 이수현황

지부명	교육기간	이수인원	교 육 장 소
전 북	7. 1~7. 3	261	전주 여성회관 강당
경기남(1차)	7. 5~7. 7	241	안양상공회의소 강당
경기남(2차)	7. 8~7.10	244	〃
강 원	7.13~7.15	164	한전 강릉지사 강당
서울(1차)	7.19~7.21	218	도로교통안전협회 강당
서울(2차)	7.22~7.24	249	〃
서울(3차)	7.26~7.28	252	〃
서울(4차)	7.29~7.31	273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토론회 개최

협회는 지난 7월 20일(화) 서울 신당동 소재 도로교통안전협회 소강당에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57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에서 상주선임에 한해 전기기사 1급은 실무 경력3년에서 1년으로, 2급은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시킨다는 정부 개정(안)은 전기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현행대로가 좋다는 의견이었고, 또한 제58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에서는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자의 개정(안) 역시 현행대로 소속 직원중에서 선임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59조 자가용전기설비 중 예비 발전설비를 자가용개념에서 제외시킴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3개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협회개정(안)으로 다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회지 모니터 통신 설문실시

협회 홍보과에서는 협회지 편집내용 향상과 회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대중성을 지향하고 편집내용 혁신을 기하고자 지난 2월에 이어 협회지 모니터 통신 설문을 7월 27일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전지부, 전기인 조찬회 가짐

대전지부(지부장:손문영)는 지난 7월 7일 대전중앙관광호텔에서 대전지역전기인조찬회를 갖고,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대전EXPO개최에 따른 전기시설 안전점검관리에 공동참여, 전기시설을 점검·보수키로 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의 성금으로 매년 장학생에게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충청전업장학재단의 운영 현황, 한전 충남지사 직원들이 직접 대전소년원생들에게 외선전공교육을 시켜주는 들국화 전기학교의 실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및 송전소로 건설에 따른 민원해결방안, 한전 전기설비 무단증설 자진신고에 따른 문제점과 전기공사 무면허업자 근절대책, 농사용전기요금 구조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토의했다.

인천지부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인천지부(지부장:이봉섭)는 지난 7월 29일(목) 지부 사무실에서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청 및 6개구청 전기담당자가 모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보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됐다.

비 내리는 호남 고속도로

— 전 전북지부장 고 황우일님 회원 영전에 —

여보게, 그렇게 갈수가 있단 말인가?
당신의 나이 이제 50인데
어찌 그리도 성급하게 간단 말인가?
얼마전 이곳 대전에 볼일이 있어
다녀 간다며 전화 한 것이 한 달도
안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얼굴보고 가겠노라고 전화할 때
왜 그대로 보냈던고?
다음에 보자고 한 것이 마지막이
될 줄 뉘 알았으리…
지난번에는 내가 소주를 살 차례
였는데 내가 빚을 졌소이다.

그대가 전북 지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은 우리가 겪어야 했던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절이였소.
지난 세월 암울했던 시절에 뜬질나게
회의에 참석하여 전기기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던 모습 너무나
생생하오.
언제나 시시비비에 주저하지 않고
의견을 모아주었던 온화하고 정의로웠던
그대를 생각하오.
기사 협회의 재창립의 밑거름을 주는
전환기의 큰 역할을 당신도 분담하지
않았소.

그대의 영전에 다녀서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대를 생각하오.
주룩 주룩 흐르는 빗물은 하염없이
차창을 때리고 와이퍼가 바쁘게
긁어내고 또 밀어내도 가려진 시야가
걷히지 않음은 빗물 때문만은 아니겠지.
텅빈가슴 그대 모습 가득 채우고
아른거리는 고속도로 빗속을 달리는데
빗물이 눈물되어 차창을 뒤엎고
허물어지는 가슴, 파도되어 밀려오는
싸늘한 아픔,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스팔트도 함께 우는구려.

서쪽 하늘끝 하얀 하늘구멍 허공속에
황소같은 그대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여 봅니다.
만남이여, 이별이여,
밀물처럼 스며드는 아픔 달래며
그대 다시 만남을 기약하노라.
새로운 세계에서 그대 다시 만나는 날
그대에게 진 빚 소주잔 곱배기로
열배 백배로 갚으리다.

고이 잠드소서.

(1993. 8. 3. 호남고속도로에서 이재혁)